

## 2000년대 이후

## ‘협한’의 내용과 의미 변화

두 개의 &lt;조선카루타&gt;를 사례로 \*

김호진

## 1. 들어가며: ‘조선카루타’의 전시를 둘러싸고

2019년 10월 27일. 나고야시에서 <일본제일당 아이치현지부>(日本第一党愛知県支部)<sup>1</sup>가 주최한 <아이치 토리카에나하레 2019 ‘표현의 자유전’>(あいちトリカエナハレ2019「表現の自由展」)이 개최되었다.<sup>2</sup> 이 이벤트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아이치현이 개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 2019, 이하 아이토리)에 정치적 이유로 일본에서 전시가 불허되거나 검열의 대

김호진(金孝眞)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조교수를 거쳤다. 오타쿠 문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일본 사회의 대중문화 및 젠더 정치학, 한일문화 교류와 세계화 속의 문화민족주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공저, 2020),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여섯가지 시선』(공저, 2018), 역서로 『BL 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2018), 논문으로 「협한 만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이린도(靑林堂)의 최근 출판물을 중심으로」(2016)가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 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1.25.298>

상이 된 작품을 모은 <표현의 부자유전>(表現の不自由展)<sup>3</sup>이 전시물로 포함된 것에 대한 항의성 이벤트였다. 이벤트의 명칭에 ‘교체’(トリカエ, 取り換え)라는 단어를 넣고 <아이토리>의 심볼을 혐한(嫌韓)들이 자주 사용하는 ‘니다’ 아스키아트<sup>4</sup>로 바꾸는 등, 항의의 대상인 <아이토리>를 패러디하여 풍자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었다.

여기서 전시물의 하나로서 등장한 것이 통칭 ‘조선카루타’, 원어명은 <아쿠츄 카루타>(アクションカルタ)라고 불리는 혐한 일러스트였다.<sup>5</sup> 작은 전시회장의 벽 한 면을 차지한 이 <아쿠츄 카루타>는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한민족’과 그들이 정체를 숨기도록 돕고 있는 일본의 매스미디어, 그리고 이들을 일망타진하는 일본의 공권력에 대한 카루타 형식의 일러스트 카드와 그와 짝을 이루는 대구(對句) 카드가 함께 전시되었다.<sup>6</sup>

이때 통칭 ‘조선카루타’에는 2005년경 만들어진 <아쿠츄 카루타> 이외에도 또 하나의 ‘조선카루타’, 즉 2015년에 서적의 형태로 출판된 『신판 조선카루타 한국속담 100선』(新版朝鮮カルタ韓国ことわざ100選, 이하 신판 조선카루타)이 존재한다. 이 두 카루타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된 한 장의 일러스트와

- 1 <제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 이하 재특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혐한테모를 조직, 주도한 인물인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가 당수이다.
- 2 「芸術祭 あいちトリカエナハレ2019「表現の自由展」」<https://japan-first.net/news/aichi-2019-10-27/>(최종검색일: 2021. 5. 25.).
- 3 한국에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중단 사태>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이치트리엔날레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지”, 『한겨레신문』, 2019. 8. 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4393.html>, 최종검색일: 2021. 5. 31.)
- 4 ニダAA(< ` V ’)로 불리며, 일본의 익명게시판 사이트인 니찬네루(2ちゃんねる)에서 개발되어 혐한이 ‘한민족’을 지칭할 때 흔히 쓰인다.
- 5 ‘アクション’의 국립국어원 표기는 원칙적으로 ‘아쿠츄’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 북한, 재일코리안에 대한 비하용어로서 ‘츄’가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고(위키피디아 관련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EC%B6%8D>, 최종검색일: 2021. 5. 25.) 한국어 인터넷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방식을 존중하여 ‘아쿠츄’으로 표기한다. 한편 일본의 전통 카드놀이인 카루타는 원칙적으로 히라가나의 50음도에 따라 50개의 일러스트 카드와 50개의 짧은 시나 구절이 세트를 이루고, 이 세트를 찾아내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다.
- 6 실제 전시된 모습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s://twitter.com/monosimphony/status/1188389527896780800>(최종검색일: 2021. 5. 21.) 이외에도 전시물로는 <아이토리>를 주관하고 표현의 부자유전에 대한 보수파의 항의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강하게 비판한 아이치현 오무라 히테아키(大村秀章) 지사를 개구리처럼 희화화한 조소작품, 평화의 소녀상을 희화화한 회화 및 이승만 그림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등이 포함되었다.

200쪽에 이르는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다르지만, 2021년 현재도 ‘조선카루타’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지칭되고 있다.<sup>7</sup>

〈아쿠츨 카루타〉의 등장, 그리고 〈아쿠츨 카루타〉의 형식을 본딴 『신판 조선카루타』의 출판 사이에는 약 10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이 기간 동안 일본 사회에서 혐한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 두 카루타가 바탕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2005년을 전후한 시기, 즉 혐한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에 익명의 인터넷 유저들이 수집하고 확보한 집합지(集合知, collective intelligence)<sup>8</sup>로서 만들어진 혐한적인 소재(ネタ, 이야기거리)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두 ‘조선카루타’를 통해 2005년경 인터넷상에서 축적되고 공유된 혐한적 소재가 10년의 시간을 거쳐 해석되고 향유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일본 사회에서 확산된 혐한에 대한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근의 혐한적 흐름의 기원은 1990년대 초반, 냉전의 해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동, 그리고 그 당시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한 역사수정주의적 흐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구라하시 고헤이(倉橋耕平)는 미디어문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인터넷우파의 토대는 1990년대 역사수정주의와 소위 ‘논단’의 ‘서브컬처’(subculture)화로 간주한다.<sup>9</sup> 또한 소위 ‘인터넷우익’을 ‘인터넷우파’<sup>10</sup>라는 보다 폭넓은 개념을 통해 역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이토 마사아키(伊藤昌

7 예를 들어 SNS인 트위터(twitter)를 #朝鮮カルタ라는 해쉬태그로 검색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등장한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후술한다.

8 이때 집합지란 이토 마사아키가 논의한바, 대학이나 학계, 기성 언론 등 지적 권위가 주어진 ‘전문지’(専門知)에 대해 익명의 일반인, 인터넷 유저가 찾아낸 지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것은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青弓社, 2019, 395~397쪽을 참조하라.

9 倉橋耕平, 『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 90年代保守言説のメディア文化』, 青弓社, 2018.

10 여기서 인터넷우파는 일반적으로 네토우요(ネトウヨ, 인터넷우파를 부르는 슬랭)를 의미하는데, 이 토는 이 용어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용어를 통해 이들을 회화화함으로써 진지한 학술적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토의 입장을 수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우익을 인터넷우파로 쓰고 있다.

亮) 또한 포스트 냉전기, 즉 1990년대 초반의 보수계열 잡지를 통해 인터넷 우파의 초기적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본다.<sup>11</sup> 이상의 연구는 협한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우파를 현대 일본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지움으로써, 최근의 협한적 흐름이 사실은 다양한 세력(이토의 표현에 따르면 ‘클러스터’)이 다양한 목적(‘아젠다’)을 가지고 합종연횡하여 탄생한 우연한 결과라는 점, 즉 푸코(Foucault)의 계보학(genealogy)에서 사건(event)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sup>12</sup>

이는 최근의 협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흔히 한국인들이 협한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식민지역사에서 귀결된 뿌리 깊은 일본인의 한국혐오’는 일정 정도 설명력을 가지지만, 이는 왜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협한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1990년대부터 ‘협한’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에 비교했을 때 2000년대의 협한, 그리고 2010년대의 협한은 일본 사회의 변화, 나아가 한일관계의 변화와 함께 그 내용과 맥락이 변화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2005년경, 그리고 2015년경 제작된 두 개의 ‘조선카루타’를 사례로 이들이 보여 주는 협한의 내용을 살피고, 나아가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었는가를 비교함으로써 2005년과 2015년이라는 10년의 시차를 통해 협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협한의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로서의 협한이 도달한 ‘아이러니한 몰입’<sup>13</sup>의 결과로서 인종주의(racism)의 문제를 논하

11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 37~82쪽.

12 이는 협한을 숨겨진 구조의 반영이나 역사적 결과물로 바라보는 대신, 이벤트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힘(power)과 시간성(temporality), 그리고 기억에 주목하여 특정한 사건 및 조건의 변화에 바탕한 중요한 사건(event)을 통해 단절과 타협을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로서 분석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아이러니한 몰입이란 의식과 객관적인 행동 사이의 독특한 역립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대상에 대하여 아이러니한 거리를 두고 있다(‘사실은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행동의 차원에서 판단하면, 그 대상에 몰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실제로는 믿고 있다).” 오사와 마사치, 『내셔널리즘의 역설』, 어문학사, 2014, 242쪽.

고, 문화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혐한의 해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일본 인터넷우파의 형성과 ‘서브컬처’: ‘혐한’ 아젠다의 대두라는 ‘사건’

### 1) 인터넷우파의 밑그림으로서 1990년대와 ‘서브컬처’로서의 만화

이토 마사아키는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인터넷우파(ネット右派)의 기원으로 1990년대 후반에 성립한 니찬네루 이전의 여러 언더그라운드 사이트들—〈아메조우〉(あめぞう), 〈아야시이 와루도〉(あやしいわーど) 등—을 중심으로, 이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출판 미디어 중심의 ‘신보수논단’(新保守論壇)의 영향을 들고 있다.<sup>14</sup> 그리고 이는 유럽에서 나타난 극우정당 및 극우단체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고유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우파가 등장했고 그 기점을 2000년대 중반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오히려 인터넷우파가 정점에 달한 것이 그 시기이며, 2010년 이후는 일종의 ‘운동’으로서 인터넷우파의 움직임은 성숙기 및 보급기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sup>15</sup> 그리고 이토는 그 근거로서 2010년대 이후 인터넷우파의 활동에 대해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반대운동—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종주의 타도부대’(レイシストをしばき隊, 2012), C.R.A.C.(Counter-Racist Action Collective)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혐오발언)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아졌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한편 1990년대에서 인터넷우파의 기원을 찾는 것은 구라하시 고타이도

14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 19쪽.

15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 15쪽.

마찬가지인데, 특히 구라하시는 1990년대에 역사수정주의로 대표되는 보수담론이 ‘보수 비즈니스’이자 ‘서브컬처’로서 확산된 것을 최근 험한 현상의 ‘밑그림’(原圖)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바로 ‘서브컬처’로서 보수담론이라는 개념이다.

이때 ‘서브컬처’는 흔히 오타쿠 문화연구의 맥락에서 인용되는 아즈마 히로키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PC, SF, 특수촬영, 피규어, 그 밖에 서로 깊이 연관된 일군의 서브컬처”<sup>16</sup>가 아니다. 오타쿠계 문화와 등치되는 아즈마의 ‘서브컬처’ 개념과는 달리 구라하시는 오히려 1990년대에 대두한 역사수정주의의 담론과 그를 조장한 미디어문화 자체를 ‘서브컬처’이자 ‘보수 비즈니스’로 보고 있다. 환언하자면 “역사수정주의의 사고에는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저항/대항’이라는 얼굴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대항의 문화’”<sup>17</sup>라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 담론이 게재되고 유통되는 미디어문화 자체가 ‘서브컬처’라는 것이다.

이때 서브컬처 개념은 문화연구나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하위문화(sub-culture)에 가까운 것이자 오쓰카 에이지가 1990년대의 논단(論壇)에 대해 지적한 바, “‘오타쿠계 문화인’이 태생을 묻지 않고 전문 외의 사안을 언론으로 할 수 있는 논단지의 환경은 ‘오타쿠라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기 쉬운’데, 그 이유를 ‘여기가 서브컬처이기 때문’”<sup>18</sup>이라고 갈파한 바를 따른 것이다. 오쓰카는 대표적인 사례로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가 1996년부터 보수계 잡지인 『SAPIO』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만화를 실으면서 논단에 진입한 것을 든다.<sup>19</sup> 이 발언에 대해 구라하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논단, 즉 서브컬처화한 논단이 여론을 리드하는 상황에 대한 오쓰카의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때 서

16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오타쿠를 통해 본 일본사회』, 문학동네, 2007, 17쪽.

17 倉橋耕平, 『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 90年代保守言説のメディア文化』, 13쪽.

18 倉橋耕平, 『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 90年代保守言説のメディア文化』, 134쪽.

19 오쓰카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에 대해 “고바야시 씨라는 신체 자체가 서브컬처화한 논단이라든지, 서브컬처화한 사태의 상징 같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倉橋耕平, 『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 90年代保守言説のメディア文化』, 134쪽.

브컬처는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대표하는 만화라는 미디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수정주의 담론이 우위를 점한 정치문화의 상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토 또한 인터넷우파의 발전단계에서 ‘서브컬처’에 주목한다. 이토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인터넷우파를 크게 5개의 아젠다와 6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면서, 현재 일본의 인터넷우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아젠다—협한 아젠다, 반리버럴시민 아젠다, 역사수정주의 아젠다, 배외주의 아젠다, 반 매스미디어 아젠다—와 클러스터들—보수계 섹터(서브컬처 보수클러스터, 백래쉬 보수 클러스터, 비즈니스 보수 클러스터)와 우익계 섹터(기성우익계 클러스터, 신우익계 클러스터, 네오나치 극우 클러스터)—이 어떻게 사안에 따라 연합하고 결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인터넷우파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협한으로 수렴되는 이들의 주장은 실제로는 필연적, 구조적인 결과가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sup>20</sup>

그리고 이 중에서 본 논문에서 분석할 ‘조선카루타’의 내용을 제공하고 실제 일러스트 및 서적 출판을 주도한 ‘서브컬처 보수 클러스터’에 대해 이토는 당초 반리버럴시민 아젠다와 반 매스미디어 아젠다를 중심으로 했던 이들이 점차 협한 아젠다까지 포괄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이념적 갈등이 힘을 잃으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는 그 당시 양당체제가 붕괴하면서 연립정권이 성립하는 등, 정치적인 상황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버럴시민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시민운동의 문제점 또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첨

20 이는 배외주의(排外主義) 개념을 통해 ‘재일특권’ 담론과 그를 지지하는 협한을 분석하는 히구치 나오토에게도 공통된다. 히구치는 실제 풀뿌리 보수를 다수 인터뷰하여 그들이 어떻게 보수주의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역사수정주의에 공명하면서 보수주의를 받아들였고, 역사수정주의를 ‘자학’이나 ‘반일’이라는 관점에서 확장한 결과로서 ‘재일특권’ 담론, 즉 협한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히구치 나오토,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왜 재일코리안을 배척하는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5, 212~216쪽.

예하게 비판한 것이 앞에서 살펴본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였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고바야시는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동시에 내부자로서 시민운동의 이면이나 내부 문제를 폭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고 이후 보수잡지인 『SAPIO』로 옮겨 간 이후에는 「신 고마니즘 선언」(新ゴーマニズム宣言)을 연재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어 내는 등 이 잡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반리버털시민 아젠다’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sup>21</sup>

이때 만화라는 미디어는 “‘대문자의 단어와 공허한 말싸움’에 시종하는 메인컬처[주류문화]에 대해서 ‘일상의 생활 감각과 등신대의 체험’을 담보하는 것으로서의 서브컬처의 성숙,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그 농밀한 세계라는 관점을 대치시킴으로써 리버털과<sup>22</sup> 담론의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도구였으며, “만화, 도시풍속, 역사소설 등의 서브컬처에서 살아가고, 그 농밀한 공기를 양분으로 하여 각각의 활동을 펼쳐 나간 그들 특유의 스탠스”<sup>23</sup>는 1990년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광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것이 이후 ‘서브컬처 보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토가 메인컬처(리버털과 담론)에 대해 서브컬처(반리버털과 담론)가 주로 나타난 영역을 만화, 도시풍속, 역사소설로 보고 있는 것은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가 지적한 바, 전후 일본 사회에서 만화야말로 ‘대중문화’라는 시각과 연동된다.<sup>24</sup> 대중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만화는 바로 이 대중성으로 인해 서구의 영향에 종속된 고급문화에 대비되는 ‘일본의 전통’으로서 서브컬처로 간주<sup>25</sup>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고바야시의 만화가 역사수정주의라는 ‘반리버털시민적 사상’을 대표

21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혐한의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승희, 「재일코리안 문제를 둘러싼 일본 우익 내부의 균열 양상: 『사피오(SAPIO)』의 ‘재특회(在特会)’ 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학(일본학)』 39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280~288쪽을 참조하라.

22 전후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좌파지식인 및 부유하고 교양있는 시민의 이미지가 대표적이다.

23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 108~109쪽.

24 쓰루미 슌스케, 「전후 일본의 만화」, 『전후 일본의 대중문화』, 소화, 2001.

25 이런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의 슈퍼플랫론을 들 수 있다.

하게 된 상황 또한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서브컬처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일본에서 만화라는 미디어가 본질적으로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학술서나 지적 권위에 대비되는, 진정한 대중문화로서 만화라는 위치로 인해 발생한 효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2) 서브컬처 보수 클러스터와 혐한의 관계: 2000년대 중반까지

1)에서는 2000년대 이후 혐한의 ‘밈그림’으로서 1990년대 발흥한 역사수정주의, 그리고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서브컬처’로서 만화와 보수논단의 성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에서는 일러스트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조선카루타’의 ‘밈그림’으로서 혐한의 소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시작한 2000년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토는 2000년대 이후 인터넷우파와 혐한의 중심지로서 이전의 언더그라운드적 인터넷사이트들을 대체하면서 등장한 니찬네루(2ちゃんねる, 1999년 개설, 현재는 5ちゃんねる)를 지목하면서도, 실제 니찬네루 유저의 주된 성향은 혐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리버럴시민 아젠다’ 및 ‘반매스미디어 아젠다’였다는 점에 주목한다.<sup>26</sup>

실제로 이 당시 니찬네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일본어로는 엔조(炎上)]의 내용을 살펴보면 니찬네루에서 먼저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후반,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 등 재일외국인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네오나치적 배외주의 클러스터<sup>27</sup>의 주장—외국인

26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 301~304쪽. 이는 연구자의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바, 니찬네루의 개설자 니시무라 히로유키가 혐한적 유저를 ‘혐한츄’(嫌韓厨)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 그리고 혐한이 명시적인 흐름으로 등장한 이후인 2010년 전후 니찬네루에서도 혐한관련 게시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효진, 「기호(嗜好)로서의 혐한(嫌韓)과 혐중(嫌中): 일본 넷우익(ネット右翼)과 내셔널리즘」, 『일본학연구』 33호, 단국대 일본학연구소, 2011, 37~41쪽을 참조하라.

27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반공산주의연대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기성

참정권 문제를 둘러싸고 재일코리안의 존재를 문제시 —에 대해 니찬네루로 대표되는 서브컬처 보수 클러스터가 동조한 결과였다는 것이 이토의 분석이다. 또한 이는 히구치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2010년경 시점에서 인터넷과 우파논단의 차이로 우파논단에서는 ‘협한’과 ‘재일특권’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면서 이는 인터넷 상에서만 유통되었다는 점, 즉 인터넷상에 한정된 움직임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28</sup>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은 “게시판 등에서 읽고 버려지던 협한적인 언설이 개인사이트에서 체계화”되는 한편, 한국 신문의 일본어판 서비스 및 한일 자동번역 서비스의 개시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한국 정보를 얻기가 쉽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sup>29</sup> 그리고 이런 한국 정보의 범람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협한적인 담론이 퍼져 나가던 시기에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오구라 기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일본어판이 충실해지면서 기사나 칼럼의 내용을 일반적인 일본인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어의 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후 비약적으로 좋아졌고 열람하는 사람도 매우 증가했다고 생각된다.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위화감이 증폭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신문 기사와 칼럼 내용에 대한 위화감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중략) 그 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한 일본인이 한국 주요 신문의 인터넷 일본어판을 접한 것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 하나의 요인이었다.<sup>30</sup>

우익과는 다른, 전 세계적인 네오나치 운동의 영향 및 밀리터리 서브컬처의 영향권에서 발생했다.

28 히구치 나오토,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왜 재일코리안을 배척하는가』, 286~292쪽.

29 히구치 나오토,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왜 재일코리안을 배척하는가』, 288쪽.

30 오구라 기조, 『일본의 협한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제이앤씨, 2015, 52~53쪽.

이와 관련하여 이토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우파의 협한적 움직임, 특히 니찬네루의 협한이 역사탐색—사료찾기로 대표되는—을 중심으로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2002년에 개설되었지만 유저들 간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2009년에 폐지된 네이버(NAVER)의 인조이코리아/인조이재팬(ENJOY KOREA/ ENJOY JAPAN)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일 인터넷 유저의 역사논쟁을 들고 있다.<sup>31</sup> 이 게시판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시사와 역사에 관련된 게시판은 항상 논쟁의 중심이었고, 이 당시 한국 인터넷 유저들의 일본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 니찬네루의 협한 관련 게시판에서 흘러들어 온 일본의 인터넷 유저들이 철저하게 자료를 찾아내 이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기서 이토는 단순히 일본의 인터넷 유저들이 1990년대에 대두한 역사수정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자료를 최우선시하는 철저한 실증주의적 태도를 고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위 ‘근거는 어디야?’(ソースはどこ?)라는 인터넷 용어로 집약되는 이런 ‘실증주의적’ 태도가 당시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역사전문가로서 내세운 ‘전문지’에 대항하여 다수의 평범한 인터넷 유저가 창출하는 ‘집합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집합지’는 ‘맞추는 힘’과 ‘찾는 힘’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과 극단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sup>32</sup>

이보다 더 나아가 구라하시의 최근의 협한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배외주의가 배경에 깔고 있는 역사수정주의 자체가 엄밀한 학술적 담론이 아닌 일종의 ‘게임’이자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한 참여형 문화로서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33</sup> 이런 관점에서 역사수정주의라는 ‘얇’을 탄생시

31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 385~403쪽.

32 伊藤昌亮,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 398쪽. 이에 대해 구라하시의 이런 ‘집합지’가 사실상 어떤 원작에 대해 열광적인 팬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2차 창작’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일반적인 창작물과 팬덤과는 달리, 정치나 역사는 실재하는 마이너리티와 권력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킨 1990년대 미디어문화의 특징을 구라하시는 1) 논파를 중심으로 하는 아  
마추어리즘, 2) 참가형 문화, 3) 정치담론의 상업화(서브컬처화), 4) 미디어시  
장의 대립·긴장으로 정리한다.<sup>34</sup> 그리고 이는 관련 전문가의 설득력 있는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일부에서 강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재일특권' 담론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 3. 두 개의 '조선카루타': <아쿠총 카루타>와 『신판 조선카루타』

1) <아쿠총 카루타>: 2000년대 험한 소재의 집합형으로서 시각이미지  
두 개의 '조선카루타' 중에서 2005년경에 인터넷상에서 공유, 유통되기 시  
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쿠총 카루타>는 아쿠(アク, 悪)와 총(チョン, 趙善징에  
서 유래한 것으로 비하어)을 합성한 것으로 <악  
한 조선인 카루타>로 번역된다. '아쿠총'이  
라는 이름 자체가 악의를 느끼게 하는 이  
름이지만, 이 용어 자체가 '액션'의 일본어  
발음인 '아쿠송'(アクション)을 패러디한, 일  
종의 '유희'이자 풍자라는 점도 지적할 필  
요가 있다.



<아쿠총 카루타>의 원작은 약 50년 전  
인 1960년대, 나고야의 다이요샤(太陽社)  
에서 구멍가게(駄菓子屋)용으로 발매한 <액  
션카루타>(アクションかるた)이다(그림 1).<sup>35</sup>

<그림 1> <아쿠총 카루타>의 원작인 <액션카  
루타>의 표지

33 젠킨스(Jenkins)가 제창한 컨버전스 문화(Convergence culture)는 복수의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드는  
콘텐츠의 유통으로 멀티미디어 산업 사이에서 동시에 문화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행동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와 '집합지'이다. 자세  
한 내용은 헨리 젠킨스, 『컨버전스컬처』, 비즈앤비즈, 2008를 참조하라.

34 倉橋耕平, 『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 90年代保守言説のメディア文化』, 223쪽.

35 <http://www.cyberdyne.co.jp/kurayami> <액션카루타> 제작 당시의 상황은 이 홈페이지의 내용에 바탕



〈그림 2〉 〈아쿠츠평 카루타〉의 전체 이미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아동들이 고객인 구멍가게에서 판매한 이 카루타는 일본과 서양의 액션영화, 범죄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장면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극화체로 불리는 사실적인 스타일의 그림체로 범인과 형사, 경찰의 대치뿐만 아니라 범인을 린치하는 장면(리, り)이나 마약중독자를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한 장면(마, ま)이 포함되는 등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이 놀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다.

서구영화와 일본영화에서 등장하는 범죄자와 경찰의 대결과 체포, 응징을 소재로 한 〈액션카루타〉는 1960년대에 발매된 이후 한동안 잊혀졌으나 2005년경, 그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명확한 흐름으로 대두한 혐한에 의해 그 내용을 ‘츄’에 대한 것으로 일러스트와 내용 모두가 패러디된 이미지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원본이 1960년대의 일러스트이고 이를 패러디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하고 있다(최종검색일: 2021. 5. 25.).

〈표 1〉 〈아쿠츨 카루타〉의 대구 카드가 지칭하는 대상 분류

범주	해당 내용	합계
한민족	あ…あちらこちらでスリ強盗/ い…犬は食いたし金は無し/ う…うまく化けてもエラは隠せぬ/ お…親は鮮人その子は不良/ き…キムチの臭いだ緊急出動/ く…糞食う民族犬も当然/ さ…さいふをすられたまた鮮人か/ 세…鮮人酒飲み大あばれ/ そ…そこは金持ちこれから盗ろう/ つ…つまらぬ理由で仲間割れ/ て…手に凶器を持つ武装スリ/ に…ニダは武器を持っている/ ね…寝込みを襲いカネカネキンコ/ は…犯罪はいつも朝鮮人/ ほ…ホルホル今すぐ金を出せ/ よ…夜の国技だニダの夜/ り…リンチは鮮人の伝統行事/ ろ…論より抗議後は暴力	18개
한국	え…エステで聞き込みアガンは無言 /か…韓國人を取り締められ/ し…新幹線とウリふたつ/ す…すすり泣いてもまた密入国/ た…逮捕されたらザパニーズと名乗る/ な…なぜか日本史もウリナラ起源/ ひ…昼は学生夜はバイト/ み…密航してでも日本に行きたい/ む…無断でコピーペロセウカン/ ゆ…油断大敵夜の京城/ 糸…縁を持ったら法則発動/ れ…歴史捏造匪賊も烈士/ わ…訳が分らぬ特亜の主張/ を…ウォンはどうなるワロス曲線/ ん…ん? 今日はお前は呼んでない	15개 (북한과 공통: 1개, 강조표지)
북한	こ…これが夢見た十年後/ の…ノドンもテポドンも衛星ニダ! / ん…井の中のかわず北の將軍/ ら…拉致は日本からだけでなく わ…訳が分らぬ特亜の主張	5개
재일코리아안	ち…ちからで特権を奪い取ろう/ ん…濡れ衣差別といつもの言い草/ ま…マジでムカつく在日ヤクザ/ め…迷惑電話でマスコミ攻撃	4개
일본	け…警察と入管新大久保へ出動/ と…得意の射撃で全員射殺/ ふ…普段の心得パトロール/ へ…平和な日本が来る日まで/ も…猛烈電波発信中 (일본NHK)/ や…優しい新聞本名載せず (일본신문)/ る…ルンルン楽しい日韓断交	7개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러스트와 대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작 시기는 2005년경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1〉에 들어간 카루타 내용 중에 ‘대포동’(노, 0)과 ‘납치’(라, ㄹ)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인 납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또 ‘한일단교’(루, ㄹ)라는 내용 또한 1990년대 후반, 보수와 중심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내세우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2000년대 이후 이 일러스트가 패러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카드에 매치되는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이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

면 연구자가 이전 논문에서 분석했던 바, 『만화협한류』의 출판으로 대표되는, 일본 인터넷에서 혐한, 혐중을 내세우는 인터넷우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5년경과 일치한다.<sup>36</sup>

이와 더불어 ‘특아’(特亜, 특정아시아의 줄임말로 ‘반일’국가인 한국, 북한, 중국을 의미)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는 사실(와, わ)은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되던 유명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인 니찬네루와의 관계성을 떠올리게 한다.<sup>37</sup> 이는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인터넷에서 혐한의 중심이 니찬네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쿠츨 카루타>의 유통에 니찬네루의 관련 게시판과 그에 상주하던 유저들—이후 재특회로 발전하는—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총 48장의 일러스트와 48개의 대구 카드로 이루어진 <아쿠츨 카루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일러스트에서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총 5장으로 새우깡, 아가씨, 김정은, 고이즈미/노무현, 재일특권), 대부분의 일러스트는 원작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주 조금 패러디한 것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일러스트는 대구 카드와 함께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대구 카드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분류하면 총 48개의 카드 중, 한민족 전체에 대한 것이 18개, 한국이 15개(이 중 1개는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다룸), 북한이 5개, 재일코리안이 4개, 일본이 7개이다. (<표 1>을 참조하라.)

이상을 통해 살펴본 내용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한민족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혐오한다는 의미로서 혐한에 걸맞게 인종주의적인 것이 18개로 가장 많다는 점, 2) 한국에 대한 것이 15개이지만 실제로 한민족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에 대한 비난이 총 33개에 이른다는 점, 3) 일본에 대한 것이 7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2)는 2장의 2)에서 살펴본 오구라의 분석대로, 이 당시 한국에 대한 정

36 김효진, 「기호(嗜好)로서의 혐한(嫌韓)과 혐중(嫌中): 일본 넷우익(ネット右翼)과 내셔널리즘」, 33쪽.

37 김효진, 「기호(嗜好)로서의 혐한(嫌韓)과 혐중(嫌中): 일본 넷우익(ネット右翼)과 내셔널리즘」, 41~43쪽.

보가 범람한 것이 혐한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단순히 ‘한민족’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비웃는 것(와, わ)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당시 국제정세 및 한국의 경제력 상승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투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3) 일본에 대한 것이 7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원본이 범인과 경찰과의 대결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패리디로서 피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에 대한 이 7개 카드야말로 2장에서 살펴본바, 서브컬처 보수 클러스터가 형성될 당시 반리버럴시민 아젠다와 반매스미디어 아젠다를 중심으로 했다는 이토의 주장과 공명하고 있다. 이 7개의 시구는 크게 제일코리아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내용(4개, け, と, ふ, へ)과 전후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매스미디어에 반대하는 내용(2개, も, や), 그리고 한국과 관계를 단절할 것을 희망하는 내용(1개, る)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의 지칭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면 ‘패리디’로서 〈아쿠츄 카루타〉가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재일특권’을 중심으로 하는 배외주의, 인종주의적 경향은 한국에 대한 반감(‘반일’로 대표되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즉 혐한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내부의 이질적인 소수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서구의 배외주의와는 달리, 일본형 배외주의로서 혐한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과의 역사인식 문제와 이에 따른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움직임에 기원하고 있다는 관련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sup>38</sup> 또한, 2005년에 니찬네루에서 유통되던 혐한 이슈들을 총정리한 만화작품으로서 『만화혐한류』(マンガ嫌韓流)가 출판되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아쿠츄 카루타〉의 내용이 거의

38 대표적인 연구로는 히구치 나오토,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왜 제일 코리아를 배척하는가』를 참조하라. 히구치는 인종적·문화적 차이가 원인인 서구의 배외주의와는 달리 인종적으로도 유사하고 문화적 차이도 근소한 제일코리아인 차별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야말로 일본형 배외주의의 특징이라고 본다.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sup>39</sup>

이와 더불어 <아쿠총 카루타>가 명백하게 혐한 프로파간다로서 패러디된 한편, 이것이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제작, 유통되었다는 점 또한 명백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카루타의 내용이 대부분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인터넷우파가 제기하였던 여러 혐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 니찬네루에서 유행한 슬랭<sup>40</sup>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슈들과 슬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림 2>의 이미지를 본다고 해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쿠총 카루타>는 2005년경, 인터넷우파 사이에서 유통되는 혐한의 맥락과 소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에 동조하는 경우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된 이미지로서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일러스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원본의 ‘패러디’로 제작되어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유발한다는 점, 즉 일종의 유희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분명히 <아쿠총 카루타>는 불쾌한 배외주의적, 인종주의적 일러스트이지만, 그 방식과 내용은 2000년대 초반 ‘혐한’, ‘혐중’과 ‘넷우익’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상의 내셔널리즘이 과거처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주로 대중문화와 스포츠 이슈가 중심이 되었고 그 패턴이 유희적이었던 특성<sup>41</sup>에도 기반하고 있다.

39 『만화혐한류』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일한공동개최 월드컵의 뒷면/전후보상문제/제일 한국인, 조선인의 내력(강제연행)/ 일본 문화를 흠치는 한국/반일 마스크의 위협/한글과 한국인/외국인 참정권의 문제/ 일한합병의 진실/ 일본령침략—다케시마 문제로, 대체적으로 <아쿠총 카루타>와 비슷하게 한국과의 갈등과 역사수정주의적 스탠스로 집약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화혐한류』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쿠총 카루타>와 유사한, 일종의 집합적 창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0 ‘특아’, 그리고 ‘법칙’(法則, K의 법칙으로 불리며 한국과 친밀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는 일본인과 단체 등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법칙)이나 ‘와로스’(ワロス, 비웃음을 의미함) 등, 이 당시 니찬네루에서 발생한 슬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들어가 있다.

41 다카하라 모토아키,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 한중일 젊은이들의 갈등 읽기』, 삼인, 2007.

2) 『신판 조선카루타』: 인종주의의 본격화  
 그리고 약 10년 뒤, 또 하나의 ‘조선카루타’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신판 조선카루타』가 출판된 2015년 전후는 일본에서 사상 유례없는 ‘협한서적 붐’이 일어나고 있었다.<sup>42</sup> 그 이전에는 아마존 재팬 등 인터넷서점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협한서적이 잡지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 출판시장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시중의 대형서점 등에 진열, 판매되는 등 출판계와 서점에서 협한서적의 범람이 많은 우려를 낳던 시기이기도 하다.<sup>43</sup>



〈그림 3〉 『신판 조선카루타』의 표지

흥미로운 것은 사상 유례없는 협한서적 붐이 일어난 상황에서, 재일코리안 2.5세 인권운동가인 이신혜(李信惠, twitter id: @rinda0818)가 이 책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런 책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 트위터에서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반응이 역으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우파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면서 이 책은 아마존 재팬의 관련 서적 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일시적으로 차지하기도 했다.<sup>44</sup> 이 당시 협한을 주제로 하거나, 심지어 제목에 명시한 혐오서적(ヘイト本)이 다수 출판된 상황에서 특히 이 책이 문제가 된 이

42 이 당시 협한서적 붐에 대해서는 김효진, 『협한만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이린도의 최근 출판물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6집,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6, 274~275쪽을 참고하라.

43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출판 관계자들이 이런 풍조에 대해 비판, 자성하는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大泉実成·尾田陽介·加藤直樹·木村元彦, 『さらば, ヘイト本! 嫌韓反中本ブームの裏側』, ころから, 2015 등이 있다.

44 <https://twitter.com/rinda0818/status/639616390433931264> (최종검색일: 2021. 5. 21.). 그리고 이런 반응이 역으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우파(ネット右翼)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면서 이 책은 2015년 9월 출판 당시 아마존 재팬에서 관련 서적 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李信惠さんが激おこした「朝鮮カルタ」 Amazonランキングで 89,773位 → 1位にwwwwwwwww (http://testkun.blog.jp/archives/42039308.html, 최종검색일: 2021. 5. 21.). 이 당시 넷우익 계열의 ‘정리사이트’(まとめサイト) 혹은 ‘정리블로그’(まとめブログ)에서 이신혜의 비판이 역으로 이 책에 대한 주목도를 올린 상황을 비꼬는 내용을 여전히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정리사이트에 대해서는 김효진, 『기호로서의 협한과 혐증: 일본 넷우익과 내셔널리즘』, 36쪽을 참조하라.

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판 조선카루타』라는 책 제목부터 살펴보자. 책 제목에 들어간 ‘신판’이란 새로운 판본이라는 의미로, 이전에 이미 ‘원판’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카루타』라는 제목을 가진 출판물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검색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적이 아닌 형태의 ‘조선카루타’가 이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신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조선카루타’로 검색하면 실제로 1)에서 살펴본 〈아쿠츨 카루타〉와 이 책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의 독자들은 대부분 〈아쿠츨 카루타〉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 책을 ‘신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45</sup>

『신판 조선카루타』는 저자 우시베 사토시(牛辺さとし)가 식민지시대, 그리고 1970년대에 출판된 한국의 속담에 대한 전문 학술서적<sup>46</sup>을 토대로 임의 선정한 속담 총 100개를 중심으로 각각의 속담에 대해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1쪽, 그리고 속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나 저자의 해석을 담은 1쪽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 책이 일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지만 실제로는 단행본과 만화의 중간 형태라는 점, 즉 일반적인 험한 단행본과는 달리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각 매체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책의 표지다. 일반적인 문자 중심의 험한서적은 표지가 문자뿐이거나 저자, 혹은 관련된 사물의 사진을 사용하는 데 반해 이 책의 표지는 본문 중에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여러 장 활용하고 있으

45 「朝鮮カルタがアマゾン1位に！李信恵「販売ダメ！差別ニダ」の呟きで89773位から1位へ急上昇」  
<http://deliciousicecoffee.jp/blog-entry-5946.html>(최종검색일: 2021. 5. 25.). 2015년 9월 5일에 작성된 이 블로그 포스팅에 따르면 이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인터넷우파가 ‘조선카루타’로 불렀던 것은 〈아쿠츨카루타〉였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이 발매된 이후 인터넷상에서 이 책이 ‘원래’의 조선 카루타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라고 주의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46 4권의 참고문헌이 소개되어 있는데 각각 『朝鮮の俚諺集』(1914), 『韓國俚諺集』(1971), 『対訳注解韓国ことわざ選』(1975), 『朝鮮紀行英国婦人の見た李朝末期』(1999) 등이다.

며 특히 인상적인 것이 표지 중앙의, 한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다. 전통적인 한복을 어설피게 그린 일러스트가 중앙에 배치됨으로써, 독자는 이 책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회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에세이 등의 신서나 무크가 주류인 험한서적 시장<sup>47</sup>에서 『만화협한류』 시리즈를 출판해 온 신유사(晋遊舎)와 더불어 험한만화[『태권더박』(テコンダー朴), 『히노마루선전여자』(日ノ丸宣伝女子)]나 배외주의 프로파간다 일러스트북[『그래, 난민하자 하스미 토시코의 세계』(そうだ難民しよう はすみとしこの世界)] 등을 출판해 온 세이린도(靑林堂)<sup>48</sup>에서 출판된 이 책은 책 제목에서는 카루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아쿠츨 카루타〉와의 연속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본문 내용이 일러스트와 칼럼이 세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끼워 맞춘 것에 가깝다.<sup>49</sup>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책에 실린 100개의 조선 속담이 내용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정된 속담의 다수가 1) 벌레, 구더기, 똥 등 비속어나 배설물에 대한 것(총 15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다 된 밥에 코 흘리기 등), 2) 신체 부위 중 생식기에 관련된 것(총 11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똥꼬가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 등), 그리고 3)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등)으로 분류된다.

47 실제로 인터넷상의 ‘험한’이 출판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가 『만화협한류』의 출판(2005)이라는 점에서 험한만화가 다수일 것이라는 인상과는 달리, 실제로 만화라는 미디어의 특성상 험한 만화의 출판은 소수에 그쳤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효진, 「험한만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이린도의 최근 출판물을 중심으로」, 276~277쪽을 참조하라.

48 세이린도는 과거 『가로』(ガロ) 등 언더그라운드 만화를 주로 펴낸 출판사였으나 최근 험한서적 붐을 계기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붐을 주도하고 있는 출판사로 성격이 변화했다. 특히 본문에서도 본 것과 같이 일반 험한서적뿐만 아니라 험한 만화나 일러스트북 등 시각 매체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9 각주 5에서 살펴본 바, 『조선카루타』 또한 책 제목에서 ‘카루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50개의 그림 카드와 시 또는 구절 카드가 세트라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이 책에는 총 100개의 속담이 선정 되었으므로 히라가나 문자마다 속담 갯수가 2개씩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예를 들어 ‘아’ 행을 살펴보면 ‘아’에는 2개의 속담이 들어가 있지만 ‘이’에 4개, ‘우’에 4개, ‘에’에 1개, ‘오’에 3개가 들어가 있고 다른 행에는 히라가나 1개당 1개의 속담만 들어간 경우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속담 선정의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과 해석은 대부분 속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아니라 이 속담이 어떻게 한국과 북한, 재일코리안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에 대해 저자는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 같은 물건도 막상 필요한 때에는 찾기 어렵다’라는 한 줄 해석을 붙인 후, 바로 “실제 한국에는 [개똥을 사용한] ‘개똥물’이라는 전통약이 있다. 아무도 알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기회에 만드는 법을 공개한다(이하 만드는 법)”라는 내용이 이어진다.<sup>50</sup> 그리고 이와 함께 일본어로 번역된 속담을 포함한,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남자가 땀을 흘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그 모습을 개가 비웃으면서 바라보는 일러스트가 세트에 들어가 있다.

다른 사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라’라는 속담에 대한 해설은 “원래 조선에서는 간장을 양조할 때 구더기가 들끓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어서 이런 속담이 탄생한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2009년 부산의 한 간장 회사가 비위생적인 간장을 유통시킨 사실을 적시하면서 일본에 수입된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된 사건을 이 속담의 사례로 들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변소에서 불 일을 보고 손을 씻는 습관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 이 시점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닐까? 국민 전체가 모두 비위생적이니까 구더기를 무서워해 봤자 소용이 없겠지만…”이라고 문장을 끝맺고 있다.<sup>51</sup>

한편 이 책에는 한국어 속담 원문은 실려 있지 않고 일본어로 번역된 속담만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대 한국인이 쉽게 원래 한국어 속담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약 반 정도뿐이다.<sup>52</sup> 이는 이 책이 다루는 속담이 식민지시기에 한반도에서 수집된 속담을 토대로 1914년 출판된 『조선의 속

50 『신관 조선카투타』, 18~19쪽, 「犬の糞も薬に用いようとすればない」.

51 『신관 조선카투타』, 24~25쪽, 「ウジが恐いからと醤油つくらずに済むものか」.

52 실제 연구자가 일본어로 번역된 내용을 읽은 것만으로는 원본인 한국어 속담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담집』(朝鮮の俚諺集)이 그 원전이기 때문이다.<sup>53</sup> 『신판 조선카루타』가 출판된 것이 2015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100년 전 속담을 현대의 한국인이 모두 다 사용하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속담이 기본적으로 ‘전근대적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생성된 것’<sup>54</sup>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속담들이 100년간의 역사적 변화를 겪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 나아가 북한과 재일코리안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책의 의도는 오히려 이 속담들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한민족’의 원형/본질을 보여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속담을 아는 것은 그 민족을 아는 것이다.**

속담은 오랜 옛날부터 민중들이 서로 말하고 전승해 온 것으로 그 민족적 성질을 보다 진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작금의 ‘반일’ ‘혐한’으로 일한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일본인은 정말로 한국과 북한사람들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말똥을 모르고 말의 의사가 된다’라는 조선의 속담이 있다. 말을 모르는 의사가 병에 걸린 말을 진찰해도 좋아질 리가 없는 것처럼, 그 민족의 정신과 특성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들과 일한관계에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서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우호가 시작된다.**

조선의 속담을 카루타풍의 일러스트와 함께 즐겁게 배움으로써 서로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진다면 기쁘겠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일한우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절실히 바란다.(『신판 조선카루타』, 서문, 3쪽, 강조는 연구자)

‘일한우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로 배설물이나 악행을 소재로 한 100년 전의 속담을 묘사한 일러스트에 현재의 한국, 북한, 재일코리안에 관

53 이 책 이외에 참고문헌으로 소개된 3권 중 2권은 1970년대에 출판된 조선의 속담에 대한 책이고, 나머지 1권은 19세기 말에 조선을 방문한 이사벨라 버드의 조선기행 일본어판으로 모두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이다. 자세한 것은 『조선카루타』 4쪽 〈주요 참고문헌〉(主要參考文獻)을 참조하라.

54 속담(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속담’ 항목에서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5042&cid=46643&categoryId=46643> (최종검색일: 2021. 5. 21.).

련된 사건이나 사고를 설명하는 칼럼을 동시에 배열하는 구성, 그리고 생리적인 혐오를 유발하는 속담만을 선별하여 수록한 것은 속담에서 드러나는 ‘한민족’의 본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문화’를 근거로 ‘한민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신관 조선카투타』는 문화이해를 통한 상호이해라는 명분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혐한서적 붐에 편승한 책들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더 이상 ‘혐한’을 내세우지 않고 [부정적이지만 분명 사실에 기반한] ‘한국문화론’을 내세우고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인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 출판되고 있다.<sup>55</sup> 이는 요시노 코사쿠가 분석한 80년대 미국과 일본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문화매뉴얼’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그 명분이 ‘문화이해를 통한 상호이해’라고 해도 결국 그 차이를 극대화하고 절대화하여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sup>56</sup> 이는 결코 ‘의도치 않은 결과’이거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데 바로 문화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화인류학에서는 한때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문화’ 개념이 더 이상 현대적 상황에 잘 들어맞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많은 경우 타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인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까지 속류화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류학자인 트루요(Michel-Rolph Trouillot)는 문화개념을 해체하고 다른 차원의 연구—사람들의 실천(agency), 제도에 대한 연구 등—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하 인용은 현재 ‘문화’ 개념의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문화 개념이 몇몇 식자들 사이에서는 인종(개념)의 이론적 적합성을 문젯거리로

55 실제로 이는 『만화협한류』의 완결편으로 출판된 『만화대협한류』(マンガ大嫌韓流)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공통되어 나타난다.

56 요시노 코사쿠, 『현대 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일본어뱅크, 2001.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사실 공적 영역에서의 인종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 봤자, 생물학적 결정론을 떠올리게 하는 인종주의가, 그와 평행한 문화적 본질주의에 뿌리를 둔 인종주의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sup>57</sup>

이는 『신관 조선카루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문화라는 명분으로 100년 전의 속담, 그것도 현재의 기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배설물이나 폭력, 벌레 등을 포함한 속담—을 통해 현재의 한국, 북한, 재일코리안을 하나로 묶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용문의 ‘문화적 본질주의에 뿌리를 둔 인종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4. 두 개의 ‘조선카루타’를 통해 보는 혐한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바, 두 개의 ‘조선카루타’가 만들어진 2005년 전후, 그리고 2015년에 이르는 10년간의 기간 동안 인터넷우과의 혐한은 매커너헤이(J. B. McCanahay)의 현대적 인종주의(Modern Racism)에서 오히려 역전하여 고전적 인종주의(Old-fashioned Racism)적 성향까지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카후미야키(高史明)가 매커너헤이의 논의를 빌려 정리한 바에 따르면<sup>58</sup> 현대적 인종주의는 “인종 간 평등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1) 편견, 차별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2)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는 불평등 때문이 아니라 흑인의 노력 결여에 따른 것이며, 3) 흑인은 정부에 의한 우대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4) 부당한 경제적 은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전적 인종주의보다는 미묘한 형태의 편견이지만 그에 상관없이 차별적 행동에 연

57 Michel-Rolph Trouillot, “Adieu, Culture: A New Duty Arises,” *Global Transform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 54.

58 이하 인용은 高史明, 「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古典的 / 現代的レイシズム尺度の確認的因子分析と基礎的な検討」, 『人文研究』, 2013, 72~73쪽.

결”되어 있지만 “편견이라고 자각되기 어렵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내용은 ‘재일특권’ 담론에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고전적 인종주의는 “대상이 되는 소수자가 사회 주류에 비해 열등하다는 신념에 기반한 공공연한 편견”으로 정의되는데, 이를 두 개의 ‘조선 카루타’를 통해 살펴본다면 2005년의 〈아쿠총 카루타〉가 현대적 인종주의적 요소가 더 강하고, 『신판 조선카루타』가 고전적 인종주의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쿠총 카루타〉에서 이런 고전적 인종주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쿠총 카루타〉에서도 ‘한민족’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항목이 18개에 이른다는 점은 ‘한민족’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쿠총 카루타〉는 ‘패러디’라는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한민족’ 문화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문화본질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다. 또한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만들어진 원본(〈액션카루타〉)에 대한 패러디로서, 200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공유되던 험한 소재와 니찬네루의 슬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혐오표현으로서는 기능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신판 조선카루타』는 바로 이 점에서 현대적 인종주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민족이 차별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속담이 표현한다고 간주되는, 불변하는 문화적 특성에 연결시킴으로써 전형적인 고전적 인종주의와 명시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수많은 혐한서적이 출판되는 상황에서도 이신혜가 재일코리아인 당사자로서 민감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신판 조선카루타』 또한, 사실은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소재와 아이디어는 다 갖추어져 있었다. 이 책에서 선정한 조선의 속담이 저자인 우시베 사토시가 별도로 조사, 분석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5년을 전후하여 험한의 소재로서 인터넷우파 사이에서 공유되고 논의되던 내용—‘집합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아시아의 진실>(アジアの真実)이라는 블로그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이 블로그의 게시물을 통해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런 내용이 공유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민족성을 보여 주는 속담 일람>(韓国人の民族性を表すことわざ一覽)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 12월 14일에 올라온 포스팅에는 이 당시 인터넷우파 사이에서 유통되던 조선의 속담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포스팅에 소개된 총 17개의 속담 중에서 11개가 『신판 조선카루타』에 채용되어 있다.<sup>59</sup> 총 100개의 속담 중에서 10%가 넘는 11개의 속담이 2005년 전후 인터넷에서 이미 ‘한국인의 민족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은 비록 『신판 조선카루타』가 2015년 출판되었지만, 2005년 전후에 제작된 <아쿠총 카루타>, 그리고 니찬네루에서 공유된 협한적 소재의 총집합으로서 『만화 협한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이 책에 실린 속담은 아마도 2005년을 전후하여 협한의 ‘집합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이상한 한국’, 혹은 한국인을 논파하거나 놀리기 위한 소재로서 축적,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아쿠총 카루타>와 같이 일종의 인종적 조크, 혹은 한국인을 도발하기 위한 소재<sup>60</sup>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sup>61</sup>

59 <http://blog.livedoor.jp/lancer1/archives/10733752.html>(최종검색일: 2021. 5. 20.). 『조선카루타』에 포함된 속담은 총 17개 중에서 11개(「女は三日毆らないと狐になる.」「他人の牛が逃げ回るのは見ものだ.」「他人の家の火事見物をしない君子はいない.」「母親を売って友達を買う.」「姑への腹立ち紛れに犬の腹をける.」「人が自分にそむくなら、むしろ自分が先にそむいてやる.」「家と女房は手入れ次第.」「野生のまくわ瓜は、最初に独り占めた物が持ち主だ.」「らい病患者の鼻の穴に差し込まれたにんにくの種もほじくって食べる.」「一緒に井戸を掘り、一人で飲む.」「自分の食えない飯なら灰でも入れてやる.」)이고 제외된 것은 6개(「弟の死は肥やし.」「梨の腐ったのは娘にやり、栗の腐ったのは嫁にやる.」「菅門で頬を打たれ、家に帰って女房を殴る.」「あんな奴は生まずにカボチャでも生んでおけば、煮て食べられたものを.」「川に落ちた犬は、棒で叩け.」「泣く子は餅を一つ余計もらえる.」)이다.

60 이와 같은 블랙조크로서 타국에 대한 비판, 특히 한국, 북한, 중국에 대한 비웃음과 비아냥은 2000년대 니찬네루를 상징하는 중요한 스탠스이다. 이는 서적의 형태로 출판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니찬네루의 허가를 받고 2008년 니찬네루 신서(2ちゃんねる新書)로 출판된 『웃기는 중국』(笑える中国)은 다음과 같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웃을 수밖에 없지만, 현실—같은 시대에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건’의 온퍼레이드. 그래도 인류의 1/5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이것이 진정한 진실.” 책의 내용은 중국에서 일어난 건물붕괴사고, 기차사고 등에 대한 니찬네루의 반응을 발췌하여 실고 있는데, 명시적인 차별은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도 ‘기분 나빠’, ‘이것도 일본 탓으로 하겠지’ 등의 반응은 타국의 사건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뉘앙스—이후 협중으로 연결될 수 있는—를 담고 있

그러나 <아쿠츨 카루타>가 혐한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패러디이자 풍자로서 한정된 집단 내에서 소비된 것에 비해, 상업출판물로서 조선의 속담과 현재의 한국, 북한, 재일코리아인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문화의 열등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합리화하는 『신판 조선카루타』는 보다 강력한 혐오표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신판 조선카루타』는 10년에 걸쳐 혐한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적 인종주의’으로 대표되는 형식적이어도 평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골적인 ‘고전적 인종주의’, 즉 명시적인 배외주의 아젠다가 소환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신판 조선카루타』의 서문에서 본문의 인종주의적, 문화본질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일한우호’를 강조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이는 『만화협한류』의 완결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만화대협한류』(マンガ大嫌韓流)의 결말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이다. 예를 들어 250쪽을 넘는 『만화대협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일본인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 우리들은 ‘대협한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거짓말’에는 ‘진실’로 대항하면 된다/ 한국인의 ‘반일증오’에 대해 우리들은 ‘일한우호’를 호소해 간다!// 일본인의 이런 다정함에 한국인은 계속 파고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우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겨우 이제 막 걷기 시작했으니까// 진실된 일한우호의 길을<sup>62</sup>

마지막 페이지의 이런 대사는 일견 본문의 메시지와는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전 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추측

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61 이는 그 당시 이 속담을 소개한 포스팅의 댓글에 한국을 비난하는 쪽과 문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즉 이 속담이 최초로 인터넷 상에서 ‘소개’로 등장하였을 때와 『신판 조선카루타』가 출판될 때의 ‘혐한’의 내용과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62 山野車輪, 『マンガ大嫌韓流』, 晋遊舎, 2015, 258쪽.

할 수 있다. 앞 페이지에서 주인공의 상황 인식은 “현재 일본인은 이제 혐한이 다수파라고 말해도 된다 // 과거의 ‘협한류’ 무브먼트를 넘어 파워업한 이 국민 규모의 일대 무브먼트”<sup>63</sup>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혐한이 주류가 된 상황에서 ‘일한우호’란 실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 즉 혐한이 원하는 방식의 한국과의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일한친선’과는 달리 실제로는 혐한이 더 가속화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조선카루타』의 서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속담을 통해 ‘한민족’의 정신과 특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일한우호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으나, 책의 본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속담을 통해 드러나는 ‘한민족’의 정신과 특성이 얼마나 열등하고 문제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즉 이 책들이 출판된 2015년의 시점에서 이미 혐한은 정점을 찍고 보급기에 들어가는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주류가 혐한이 되었다는 상황 인식 위에서 한국을 알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일한우호를 이룩하겠다는 것은 바로 혐한이 바탕이 된, 적대적인 한일관계를 지지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일본 사회의 카운터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후반 재특회의 헤이트스피치와 혐한데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혐오범죄와 혐오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도 2016년, 통칭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정식명칭: 본방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조처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정식으로 제정되기에 이른다.

실제적인 처벌조항은 없는 상징적인 법률이긴 하지만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5년은 적어도 과거처럼 ‘혐한’의 무해성과 비판성을 옹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혐한서적

63 山野車輪, 『マンガ大嫌韓流』, 257쪽.

본서에 소개되어 있는 속담은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에 전승되어 온 것으로 작가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본서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표현 안에 현재 일본에서는 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작가 및 출판사에 차별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속담이 태어난 당시의 시대 배경을 돌아보고, 또 조선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일부러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 두었습니다. 본서는 '서로를 아는 것에서 진실된 일한우호가 시작된다'라는 신념에 기반하여 집필되었고 우리들이 이것을 출판하는 것은 이 작품의 근저에 흐르는 '일한우호', '차별반대' 등의 테마를 넓게 사회에 호소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신판 조선카루타』 4쪽에 게재된 출판사 세이린도의 주의사항. 강조는 연구자)

이 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일한우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신판 조선카루타』 서문과 함께 들어가 있는 세이린도의 입장문이다. 『신판 조선카루타』의 내용을 떠올린다면, 이런 세이린도의 입장문이 위선적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입장문을 넣어야 할 정도로는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 사회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 5. 나가며

여기서 다시 서문에서 살펴본 2019년 〈아쿠츨 카루타〉의 전시가 가진 의미로 돌아가 보자.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아쿠츨 카루타〉가 전시된 이벤트 자체가 명칭과 심볼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이토리〉,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인 〈표현의 부자유전〉을 '패러디'하여 풍자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작을 패러디한 일러스트인 〈아쿠츨 카루타〉가 그 성격상 잘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는 점, 둘째, 〈아쿠츨 카루타〉는 특정한 작가가 없는,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일러스트라는 점이다. 이는 엘리트의 고급 예술과 대비되는 반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 권

위에 대항하는 서브컬처로서 패러디,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2019년의 시점에서 두 개의 ‘조선카루타’ 중에서 보다 초기의 인터넷 우파를 상징하는 <아쿠츄 카루타>가 전시물로 선택된 것은 극단적인 인종주의(『신판 조선카루타』가 보여 주는)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위에 보다 넓은 지지를 받았던 ‘반리버털시민’ 아젠다와 ‘반 매스미디어’ 아젠다를 다시 끌어오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혐한의 확대를 다시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등, 일본 사회의 제도적 장치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이제 혐한이 더 이상 일본 사회의 소수파가 아니라면, 과거 이들이 내세웠던 아젠다의 유효성이 사라지는 동시에, 새로운 아젠다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쿠츄 카루타>의 전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혐한은 변화하는 한일관계, 변화하는 일본 사회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내용을 반복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두 ‘조선카루타’의 사례를 통해 혐한을 일본 사회의 고질병으로 본질화하는 대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와 내용상 변화를 섬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는 혐한이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혐오하는 본질주의적, 인종주의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는 데 맞서서, 혐한이 성립한 특수한 조건과 그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논하였듯이 이런 ‘사건’으로서 혐한의 계보학을 엄밀하게 고찰하는 작업이야말로 일본 사회에서 혐한의 해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일 것이다.

---

투고일자: 2021. 6. 27. | 심사완료일자: 2021. 7. 4. | 게재확정일자: 2021. 7. 13.